Writer's Loss and Related Creativity Based on Park Wanseo's Novels

Hyung-Bae Kye¹ and Jee Hyun Ha²

¹Department of Psychiatry,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Seoul, Korea

²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박완서 소설을 통해 본 작가의 상실과 창작심리

계 형 배¹ · 하 지 현²

건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¹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교실²

For some artists, experiencing loss can serve as a source of inspiration for creative outlets and as another method of development for the ego. As an example of this, authors have explored the literary works of Park Wanseo, renowned South Korean writer who during the Korean War, experienced profound loss of those who were closest to her: her father, her older brother, her husband and even her son. Focusing on three particular novels she had written, authors have analyzed the psychology of where she drew her own creativity and her own inspiration. Their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rare amount of loss that she had undergone, both hatred and a sense of guilt were spurred within her. She created many literary works as an outlet to resolve these conflicting feelings. Second, in the service of the ego, writing may have helped her to sort through distinct motives and emotions. It is understood that the ego strives to maintain both the integration and cohesion of herself. Lastly, as psychotherapy serves as a process to biographize one's life stories, Park created her own autobiographical novels for the hopes and for the purposes of overcoming the pain and to find the insight to heal. For Park, the creation of literary works carried meaning that could be understood as an adaptation of her inner conflicts that arose from her own experiences with loss. **Psychoanalysis 2016;27(1):17-24**

KEY WORDS: Loss · Creativity · Applied psychoanalysis.

Received: September 8, 2015 **Revised:** October 21, 2015 **Accepted:** November 1, 2015

Address for correspondence: Jee Hyun Ha, MD

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Konkuk University, 120-1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05030, Korea

Tel: +82-2-2030-7569, Fax: +82-2-2030-7748, E-mail: jhnha@kuh.ac.kr

서 론

프로이트는 예술가의 창조성(creativity)이 그들의 무의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예술가의 환상의 세계가 예술 작품에 투사(project into)된 것이라 보았다. 일반인이 무의식을 억압하는 데 반해서 예술가는 창작활동으로 예술작품을 만들어 내며 무의식을 의식화하여 표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Freud 1907). 이를 창작심리라 하고, 정신분석적으로 창작 과정을 분석해 작품의 분석이나 작가의 창작심리를 유추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처음 소설의 분석을 통해 그가 꿈의 해석에서 환자를 상대로 분석했듯이, 꿈이 의미를 가질 수 있

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 일반화하려 했다. 프로이트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지적인 호기심의 근원을 유아기 성욕이 과도하게 억압되어 리비도가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고(Freud 1910),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 학생이 어머니 나인인 전당포 여주인을 죽이는 것과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 등은 작가의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던 살친소망(patricidal wish)이 창작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이와 같이 작가는 자신의 무의식 속의 내용물을 마치 백일몽을 꾸듯이 의식 근처로 떠올린 후에, 독자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럴듯하게 가공해서 작품으로 완성한다(Freud 1908; Freud 1928). 작가가 어떠한 이유로 작품을 창작했는 가라는 창작심리를 분석하는 것은 곧 작가의 무의식과 어린 시절의 일부 기억, 최근의 자극 등을 확인하여 작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이다(Freud 1908). 이를 응용정신분석(ap-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plied psychoanalysis)이라고 부르며 임상정신분석과 구별한다. 실제 환자의 사례를 정신분석한 것은 아니나, 정신분석 이론을 문학,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에 적용하여 비교하고 일반화시켜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신분석의 대상과 주제를 널리 확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프로이트가 문학 등의 예술 작품에서 주제를 가상 인물을 잠재적 임상사례로 여기고 정신분석을 적용한 실용적인 측면이 많다. 환자를 직접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비밀 유지 등의 문제가 있으며, 환자 한 개인의 사례로써 다른 사례들을 설명하는 일반화된 이론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가 초기에 이끌었던 수요회에서 환자 사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학 작품을 인용하여 토론을 한 것은 환자의 사례가 적었다는 실용적 측면뿐 아니라, 이론을 여러 방면으로 적용해서 입증하고 참여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도 있었다(Lee 2012).

자아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술 창작과 생산은 작가의 적응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Niederland 1976). Kris(1952)는 다수를 향해 한 명의 예술가가 소통을 하려는 시도이며 창조성이란 자아의 통제하에 자유롭게 퇴행하여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화시켜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재능이라고 했다. 초기 프로이트가 소망충족의 관점에서 본 것을 넘어서 자아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클라인 학파 관점에서 예술가는 단순히 억압된 무의식적 소망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문제에 대한 환상에 기반한 해결(fantasy solution)을 담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Segal 1991). 그 외에 창작을 통해 작가 자신과 현실, 내외부적으로부터의 요구 등을 통합하는 기능을 발휘하여 자신과 현실을 이해하는 마음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삶에 새로운 방식으로 대처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Noy 1978).

이상과 같이 창작심리와 관련한 많은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저자들은 중요한 대상의 상실이 창작에 미치는 영향을 정신분석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범위를 좁혀 보았다. 대상의 상실은 실제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창조성을 자극할 수 있다. 상실의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예술가는 그가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들만의 대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창조하고, 실재하는 상실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다(Robbins 1969). 상실을 통해 경험하는 분리 불안과 병적 슬픔에 대한 반응으로 자아는 퇴행을 하는데, 이때 잃어버린 대상과 자아를 연결하는 이행대상(transitional object)으로 창작물을 만들기도 한다. 이런 이행대상으로서 창작물을 외부 세계에 드러내는 것은 애도의 작업을 외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Volkan과 Josephthal 1980).

노르웨이의 표현주의 화가 에드바르트 뭉크는 어린 시절

부터 어머니의 죽음, 누나의 죽음을 경험하였고 이후에도 여동생의 죽음과 정신과적 질환으로 고통받는 동생으로 인해 불행한 가족 환경 속에서 생활하였다. 이런 뭉크의 반복적 상실과 고통이 작품 속에서 사랑의 상실, 슬픔, 외로움, 불안, 이별과 죽음 등의 주제들로 나타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뭉크는 죽은 가족들을 시각적으로 재창조함으로써 절망적인 과거 상황과 연관된 고통스런 감정과 가족들을 잃은 상실감을 부정하려 했다(Warick과 Warick 1995).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는 12세에 어머니의 자살로 인한 상실을 경험했고, 그의 작품 'collective invention'에서 볼 수 있듯이 잃어버린 어머니를 되찾으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Jones 1995). 이처럼 외국 예술가들의 상실 경험을 창작으로 연결하여 극복한 사례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예술가의 상실 경험과 창작심리에 대한 분석은 흔치 않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저자들은 한국의 소설가 박완서의 삶과 작품을 통해 분석을 시도했다.

박완서(1931~2011)는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가다. 마흔의 나이에 장편소설 「나목」이 여성동아 현상모집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한 이후 「지렁이 울음소리」, 「부처님 근처」, 「엄마의 말뚝」 등의 중단편 소설에서와 같이 전쟁의 참상과 그것으로부터 연유되고 있는 비극적 현실을 담담하고도 생생하게 전달한 작품들을 썼을 뿐만 아니라 총 15편의 장편, 100여편 가까이 되는 단편, 동화와 에세이 등의 수많은 작품을 만들어 냈다. 박완서의 삶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알려진 바 있고, 본인이 소설과 기타 글을 통해 밝힌 바 있듯이, 4세경에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6·25 전쟁으로 인해 하나뿐인 오빠가 세상을 떠난 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어려운 시기도 있었다. 58세의 나이에는 남편과 아들을 연이어 잃어 작가의 생애 동안 중요 대상들의 상실을 여러 차례 경험하였다.

저자들은 박완서가 등단할 때 발표한 처녀작 「나목」과 자전적 소설이라 밝힌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택했다. 첫 작품인 「나목」은 오빠가 사망했던 6·25 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뒤의 두 소설은 남편과 아들을 잃고 난 후 수년이 지나 다시 본격적 집필을 시작한 시기에 출간된 것이다. 이런 시간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저자들은 주요한 대상의 상실이 작가의 창작심리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과 애도, 극복과 정을 정신역동적 방법론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본 론

작가 박완서의 개인사

아버지 박영노와 어머니 홍기숙은 열다섯(부), 열아홉(모)

에 혼인을 하였다. 1931년 10월 20일, 박완서 작가는 경기도 개풍군에서 태어났으며 열 살 위인 오빠가 있었다. 1934년(4세) 아버지를 여의고 이후 어머니는 오빠만 데리고 서울로 떠났고 작가는 조부모와 숙부모가 키웠다. 1938년(8세) 매동국민학교에 입학하면서 서울 생활을 하기 시작했으며 1944년 숙명여고에 입학하고, 1950년 서울대학교 문리대 국문과에 입학하였으나, 6·25 전쟁이 시작되어 학업을 중단하였다. 이때 외삼촌이 사망하고, 전쟁 중 오빠도 사망하였다. 미8군의 PX 초상화부에 취직하여 일하던 중 1953년 4월, 호영진과 결혼을 한 후 1954년부터 1963년까지 3년 1남을 낳았다.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다 1970년 「나목」으로 여성동아 장편 소설 공모전에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활발한 작가 활동을 하던 중 1986년 남편이 폐암 진단을 받아 1988년 5월 사망했고, 같은 해 8월 31일 아들이 사망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른 후 부산에 있는 분도 수녀원에서 지냈으며 마음의 상처가 드러난 ‘한 말씀만 하소서’란 일기문을 쓰기 시작해 1990년 9월부터 1년간 가톨릭 잡지 <생활성서>에 연재했다. 1992년 자전적 소설이라 밝힌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1995년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발표했다. 이후로는 1989년 이후 중단했던 「미망」의 연재를 다시 시작하는 등 활발한 창작활동을 재개하였다. 2010년 8월 수필집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다다」를 마지막 작품으로 남겼으며 2011년 1월 22일, 담낭암으로 사망하였다.

작품 요약

나 목

PX 초상화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경은 삶을 불평하며 초상화를 그리는 ‘환쟁이’들과 타국에서의 참전한 것에 불평이 가득한 미군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어느 날 옥희도라는 화가가 초상화부에 들어와 일을 하게 된 후부터 이경은 활기를 가지고 일한다. 이경은 태수를 알게 되는데 옥희도와 자신에게 관심을 표하는 태수를 비교하면서 태수를 멀리하고 옥희도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옥희도에게는 다섯 명의 아이들, 화가인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아내가 있지만 옥희도를 위해 무언가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를 좋아한다. 집 행랑채가 폭격을 받아 두 아들이 죽게 되었으나 아들들이 죽은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고집하는 엄마를 이경은 버겁게 여기기도 하였고, 오빠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한다. 이 상황에 옥희도를 만난 것이 축복이고 구원이라고 여긴다. 화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옥희도를 보러 그의 집을 찾아가 그가 그린 섬뜩한 고목을 보게 된다. 옥희도, 태수가 있는 자리에

서 이경은 옥희도에게 사랑의 확답을 받으려고 하고 옥희도는 이경이 자신으로부터 놓여나야 되며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닌 자신을 통해 아버지나 오빠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뿐이라 말하며 자기가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자리를 떠난다. 이경은 시간이 지나 태수와 좀 더 가까워지게 되면서 그와 결혼하게 된다. 어느 청량한 가을날 옥희도씨의 유작전이 있음을 우연히 알고 찾아가게 된 이경은 유작전에서 예전 어두운 단칸방에서 보았던 그 그림 속의 나무는 고목이 아닌 봄에 대한 믿음이 있는 나목이었음을, 그리고 그 나목이 바로 옥희도 그 사람이었음을 깨닫는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개성에서 이십 리 가량 떨어진 개풍군 박적골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다. 권위적인 할아버지는 가족들의 거짓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희화화하나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이를 ‘두 번째 아버지 상실’이라 표현한다. 어머니는 시골의 무지몽매함을 벗어나기 위해 오빠를 서울로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기로 한다. 몇 년 뒤 어머니는 나 또한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로 데리고 가게 된다. 집은 사대문 바깥에 있지만 문 안에 있는 소학교에 입학하게 된 나는 서울에서 처음 맛본 아카시아 꽃의 비릿한 느낌과 상한 비위를 가라앉히기 위해 고향에서 맛보던 싱아 열매를 떠올리며 고향을 그리워하기도 한다. 어머니는 경기고녀에 보내려고 오빠에게 창씨개명을 요구하면서 괴롭혔다. 이런 압박에도 오빠가 창씨개명을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지키는 모습에 나는 그를 존경스럽게 바라보았다. 해방 이후 좌우익의 갈등이 심하였을 때 오빠의 좌익 운동으로 인해 여러 차례 이사를 다니면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오빠는 우상이었고 유일하게 그만이 정신적인 높이를 지닌 것처럼 여겼다. 서울대 문리대에 입학을 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6·25 전쟁이 일어났고 오빠는 인민군으로 붙잡혀 나갔다가 돌아왔으나 이전과는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1·4 후퇴 무렵, 부상을 입은 오빠를 데리고 피난을 가려 했으나 현저동의 빈 집에 남게 된다. 고통스러운 별れの 시간도 증언해야 별례를 벗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언젠가 글을 쓸 것 같은 예감으로 공포감을 몰아낸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오빠는 고통 속에서 제정신이 아닌 모습을 보였고 소심하고 비루해지고 있었다. 나는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올케와 함께 이 집 저 집을 뒤지고 다니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북으로 가야 한다는 위협에 어쩔 수 없이 피난길에 오르지만 남쪽에서 올라오는 피난민의 무리에

섞여 서울로 다시 와 가족들과 조우했다. 한밤중에 갑자기 오빠는 죽어 있었고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엄마는 오늘 안으로 내다 물어야 한다고 소리질렀다. 나는 스스로 썩어 감으로써 가족들과의 정을 떼려는 오빠가 싫고 무섭게 느껴진다. 이후 하루 만에 오빠를 매장했다는 죄의식에 시달렸고 오빠가 나오는 꿈을 반복해서 꾸기도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스스로 되뇌이며 의욕을 찾기 시작한다. 미군 PX에 취직하여 다니게 되었으며 초상화부 책임자가 되어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마음에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초상화를 그리도록 미군을 꼬이기도 한다. 화가들에게 안하무인으로 행동하였으나 박수근이라는 화백을 알게 된 후부터 생겨난 그에 대한 친근감과 동류 의식이 서울대생이라는 나의 우월감과 열등감의 콤플렉스에서 놓여나게 된다. 우연히 같은 동네에 살던 지섭을 알게 되었고 애정을 가지게 되었으나 그가 서울을 떠나게 되면서 외로움과 쓸쓸함에 울음을 참지 못하게 된다. 전기공이었던 한 남자를 PX에서 만나게 된다. 변하지 않고 한결같으며 편하게 해주는 그에게 점차 마음이 끌리게 된다.

창작 심리 분석

대상에 대한 미움과 죄책감, 그로 인한 회복 과정인 글쓰기

박완서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인물로 열 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오빠를 따르기도 하였으나 두 소설에서 오발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친 후에 보이는 오빠의 나약하고 소심하며 비굴한 모습에 실망하고 그를 미워하는 부분을 표현한다.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돈을 벌어서 내 식구 호강시키며 살겠노라고 미리 빠기는 오빠를 직시한다는 것은 차마 못할 노릇이었다. 쉽게 말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살겠다는 건데 딴 사람도 아닌 우리 오빠 입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차라리 귀를 막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쩌면 배신감이었을지도 모른다. 오빠는 나에게 천성의 생각하는 갈대였다. 그런 그가 지금 살찐 돼지가 되려고 열심히 자신과 식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말이 많아지면서 표정도 과묵하던 때의 준수한 모습은 간데없이, 소심하고 비루해지고 있었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어릴 때부터 오빠는 정신발달 과정에 아버지의 부재를 대체해 줄 대상으로 존재했다. 그렇기에 그냥 오누이에서 오빠와 여동생 사이의 관계보다 더욱 근본적인 대상관계 발달에

서 주요한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빠는 동일시 욕구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대상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이는 발달과정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격성과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양가감정은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다가 전쟁 중에 오빠의 부상과 사망으로 표면화된다. 어린 시기에 가졌던 무의식적인 공격성과 연관된 일종의 살부욕망(patricidal wish)이 현실화된 것일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원초적인 환상이 의식 위로 올라오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강한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오빠와 연관해서 동기간 경쟁(sibling rivalry)이나 남근에 대한 부러움(penis envy)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겠으나, 박완서의 소설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은 그보다는 아버지의 대체물로서의 오빠에 대한 동일시와 이상화가 더욱 자주 표현된 바, 저자들은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Klein(1937)의 관점에서 보면, 어릴 때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미움의 감정을 가질 수 있으며 사랑과 미움에 의한 갈등 상황이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무의식적 죄책감을 발생 시킬 수 있고, 자아 역시 이를 취소하려 노력한다.

그 여름이 가고 가을 되고 겨울 될 때까지도 나는 하루 만에 오빠를 매장했다는 죄의식에 시달렸다. 오빠가 무덤 속에서 난 안 죽었다고 무서운 얼굴로 살아나오는 꿈을 꾸고 또 꾸었다. 그리고 나면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찻값처럼 온몸이 흥건히 식은땀에 젖어 있곤 했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나목」에서도 오빠에 대한 묘사는 나온다. 이 작품에서는 더욱 분명한 표현을 하는데, 처녀작이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처녀작은 아직 작가의 작품생성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 내놓은 작품으로 예술언어적 측면에서 허술한 면이 있다. 또 처음 세상에 내놓은 작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가의 자아가 자신의 무의식 내용과 창작 동기를 기술적으로 잘 가리는 데 서툰 면이 있기에 상대적으로 잘 드러날 수 있다(Kris 1952; Ha와 Cho 1996). 이런 경향은 「나목」을 통해서도 비슷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달아난 한쪽 지붕의 기왓장과, 진흙덩이와 부서진 서까래 조각이 너털너털 달린 보기 싫은 구멍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똑똑히 보았다. “나 때문이었을까?” 망설이며 물었다. “나 때문이었을까?” 좀 더 대답하게 그 문제와 대결했다. 내가 전전긍긍 두려워한 건 실은 부서진 지붕이 아니라, 바로 오빠들의 죽음이 꼭 나 때문일 것 같은 가책이었던 것이다. 오빠들을

행랑방 벽장에 감추자는 생각을 해낸 것이 바로 나왔으니까.

「나목」

허구적 인물인 이경과 혁, 옥이 오빠라는 인물을 내세웠으나 이들은 각각 작가 자신과 죽은 오빠를 대신하는 가상 인물이라고 볼 수 있기에 작가는 이경이라는 인물을 통해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자신이 오빠를 죽인 것일 수 있다는 무의식적 양가감정과 죄책감을 표현한 것이다.

작가는 피하기 어려운 죄책감의 문제로 인해 많이 괴로워했고, 남편과 아들의 사망 이후 다시 이 문제가 부각된다. 정신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정신과적인 증상인 불안, 우울 등의 문제뿐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 자신의 직업적인 수행 정도가 떨어지거나 사회적인 고립감 등이 나타날 경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Weiner와 Bornstein 2009). 작가도 가족들과의 사별 이후에 나타나는 죄책감과 애도 과정으로써 나타나는 심리적인 고통과 불편감이 재등장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Noy(1978)가 정신치료와 예술적 창작활동을 비교하였듯이 작가에게 글쓰기는 자신의 양가감정과 오랫동안 억압해 온 죄책감을 숙달(mastery)하기 위한 자아의 노력이었다.

대상 상실로 인한 자아 붕괴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화가 몽크는 5세경 어머니가 결핵으로 사망하였고 13세경에 누나가 같은 병으로 사망하였으며 아버지 또한 어머니의 사망 이후 나타난 불안을 동반한 우울증을 앓았다. 이후에도 자신의 세 여동생 중 한 명은 폐렴으로 사망하였고 다른 한 명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은 바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온 몽크의 미술 작품에서의 주요 모티브가 죽음, 슬픔 등이 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 가능하다. 그가 반복적으로 경험한 인생사의 경험은 즐거움보다 상실이었다. 그의 작품의 대부분이 고통을 다루거나, 죽음과 관련한 무거운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 그는 작품활동을 통해 죽음으로 인한 대상 상실의 고통을 극복하고 자신 또한 사별한 대상처럼 죽어 사라지고 스스로 붕괴되어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이겨내려 했다(Warick과 Warick 1995).

어릴 때 반복적으로 경험한 상실에 대해 자아는 이유를 찾는다. 자신이 버림받은 것이라는 환상은 성인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Colarusso와 Montero 2011). 그 일에 자신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 하고, 다음은 자기 차례일 수 있다는 불안을 갖는다. 자아는 일반적인 불안보다 훨씬 강한 수준의 불안과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자아의 발달이 충분하지 않은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불안을 경험한 것은 자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아가

이런 원초적 불안을 통제하거나 억압을 하는 수단으로 창작을 동원할 수 있는데, 박완서도 이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박완서는 3세경 아버지를 여의고 20세에 오빠, 성인이 된 후 남편과 아들을 잃은 경험이 있기에 자아 붕괴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가 재등장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작을 한 것이다.

Loevinger와 Wessler(1970)는 자아를 하나의 대상이 아닌 과정으로 생각하고 외부세계를 구성하고 해석하는 하나의 준거 틀로써 자아를 연속적인 아홉 단계로 설명하였다. 가장 어린 유아기에서는 자폐적이고 망상적인 사고로 인해 자아는 없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자기(self)와 비자기(non-self)를 분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아가 발달한다고 보았으며 점차 외부 대상의 안정성을 얻게 되면서 어머니와의 공생적 관계를 가지고 그들 자신과 대상을 연관시키기 시작한다고 보았다. 만 3세경에 아버지를 잃은 작가의 경험은 자아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이후에 경험한 오빠의 죽음, 남편과 아들의 죽음은 대상 상실로 인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애써 억압했던 불안과 우울감이 매번 다시 의식 위로 떠오르게 되는데,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 느낄 정도의 강도로 느껴지며 이것이 자아의 전반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불안(signal anxiety)을 발생시켰다. 이때 자아는 이런 강한 압박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을 찾으려고 한다. 이때 작가는 다행히도 창작이라는 남다른 수단을 갖고 있다. 자아의 통제에 상실을 재경험하고 현실 안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상실한 대상표상을 자아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애도의 과정이 우울로 고착되지 않고, 심리기제의 한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안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아는 주요한 대상과의 관계가 영원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실제 상실을 경험하면서 그 환상은 위협을 받고, 더 나아가 자신의 존재 또한 사라질 수 있다는 절멸 공포로 이어질 수 있다. 예술가는 창조적인 작업을 통해 이러한 압도적인 정동에 의한 자아 붕괴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자기감을 확립하게 된다(Niederland 1976). 박완서도 그녀의 첫 작품을 오빠의 죽음이 연관된 시기를 택해서 썼고, 남편과 아들의 사망 이후 창작활동이 줄어들었다가, 어린 시절부터 결혼 전까지의 시기를 다룬 자전적 소설을 두 편 연달아 쓰는 창작행위를 했다. 이는 그녀의 무의식에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아버지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성인이 된 후 경험한 오빠, 남편, 아들의 죽음이 준 주요한 대상 상실의 외상적 경험이 자아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자아의 적극적 방어기제로 창작행위를 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붕괴를 막는 것에서 나아가 성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점이 소설에 등장한다.

나는 마모되고 싶지 않았다. 자유롭게 기를 펴고 싶었고, 성
 정도 하고 싶었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의 마지막에는 이렇듯 자신
 이 마모되고 닳아서 사라지게 되는 것에 대해 강렬한 거부
 감을 표현하고 자신의 성장에 대한 바람을 이야기하면서 글
 을 마무리하고 있다. 저자는 자아 붕괴의 위험에서 벗어나
 시련과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아의 성장과 자
 아의 확립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아마도 작
 가의 글쓰기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질적인
 동기, 감정들을 정렬하여 자아가 자기 응집력을 높이고 통합
 을 이루는(Noy 1979) 노력을 스스로 해 온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리고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여
 그것을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오래 지속적으
 로 존재하고 향유되는 작품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시
 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자신과는 달리 영원히 자신
 이 존재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통해 위안을 얻게 된다.

상처의 회복을 위한 서사적 글쓰기

예술가의 창작심리의 동기 중 하나로 마음의 상처에 대한
 예민함(sensitivity to psychic trauma)이 꼽힌다(Lowenfeld
 1941). 영국의 소설가 메리 셸리도 태어난 첫 아이가 몇 주 만
 에 죽은 후에 아이를 살려내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1년 후
 에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썼다. 죽은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을 소설 속 심리적 괴물을 창조해 내는 것으로 극복하
 려 한 것이다(Lee 2014). 프로이트는 1917년 「Mourning and
 Melancholia」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연관된 실제적인 상실이나
 실망감에 대한 개개인의 반응을 고찰했다. 사람은 특정
 시간이 흐른 후에 애도의 과정을 통해 극복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 프로이트
 는 이에 대해 정상적인 애도 반응에서는 상실된 대상을 포
 기할 수 있으며 그 대상에 투여되었던 리비도를 철수할 수 있
 는 데 반해, 우울증(melancholia)에는 상실된 대상에 투여되
 었던 리비도를 철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Freud 1917).

작가가 사랑하는 대상이었던 오빠와 남편, 아들이 사망한 이
 후, 그들에게 투여되었던 리비도를 쉽게 철수하기 힘든 상황
 으로 우울감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전문가로부터 정신치료를 받는 것인데, 정
 신치료를 삶의 이야기 수정(story repair)과정으로 바라본다
 면 창작은 어떤 면에서 정신치료를 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자기 서사로 인해 증상이 발생한 것
 이라면, 이를 재구성(rebiographing)하는 과정을 통해 치료
 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Howard 1991). 일반인이 재구성을
 위해 정신치료자라는 전문가의 존재가 필요하다면, 예술가
 는 창작능력을 이용하여 혼자 재구성해 내고 일반적인 대중
 이 향유할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낸다. 자전적인 면을 바
 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써, 정신적 상
 처를 치유하고 일방적 피해자로 여기거나 부적절한 죄책감을
 갖는 것에서 벗어나게 한다. 박완서 또한 정신치료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남편과 아들의 사망이 있었던 해의 4년과 7년
 후, 자신의 고통을 이겨 내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6·25 전쟁
 당시의 성인 무렵까지의 삶을 다룬 두 자전적 소설을 쓰게 되
 었고(Figure 1), 이 창작의 작업을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통
 찰과 시각을 얻는 자기 치유의 과정을 경험한 것이다. 이런
 삶의 재구성 작업은 오빠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돌이켜 보
 고 오빠의 죽음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게 하였을 것이
 며, 남편과 아들의 죽음 또한 자신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대상에 고착된 리비도를 철회하면서 심리적인 고통을 극복
 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줬다. 정신치료의 초기와 중기에서 환
 자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처녀작인 「나목」과 20여 년 뒤
 에 출간된 자전적 소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나목」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다. 사실상 작
 가의 개인사를 반영하고 있음에도 3인칭 시점에서 서사를
 풀어 간접적으로 서술한다. 이에 반해 자전적 소설이라 표현
 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1인칭 시점에서 서
 술했다. 「나」를 서술자로 하여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었다. 시간배경도 다른 면이 관찰된다. 「나목」은 상대적
 으로 고정된 1950년의 짧은 시기를 횡단면적 배경으로 설정
 했다. 이에 반해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는

Figure 1. Author's life events and publication of important novels.

Table 1. Differences between two novels

	Novel	
	The naked tree (1970)	Who ate up all the shinga? (1992)
Real lost object before the publication	Father, brother	Husband, son
Temporal background	The Korean War	From infancy to 20 years old (diachronic)
Addressor	Third person perspective	First person perspective
Pattern of description	Indirect (by the omnipotent writer perspective)	Direct (by 'I' addressor)

어린 시절부터 20세경까지 훨씬 긴 시간을 다룬다. 「나목」이 일정 시점에 있었던 강렬한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상대적으로 긴 호흡과 서사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치료의 초기에는 주로 의식에서 인지하고 있는 인생에서 주요한 한 시점에 고정되어 있기 쉽다. 이 시기에 일어난, 자신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고 정서적으로 재경험하는 과정에 집중한다. 정신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서서히 시점을 넓혀서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시간, 더 나아가 소아기를 포함한 먼 과거로 자유연상이 이루어지는 변화를 일반적으로 관찰하게 된다. 핵심적으로는 유아기 건망증으로 억압되어 있던 것을 회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넓은 시간대 안에서 꼬여 있거나, 현 시점을 중심으로 왜곡된 흐름을 갖고 있던 개인의 말, 행동, 사고, 느낌 등을 연상하면서 정서적 재경험을 통해 서로 연결 짓게 됨으로써 새로운 통찰을 얻는 것이 치료적 변화다. 이런 면이 작가의 창작에서도 드러난다. 「나목」의 시점과 시간대에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시점과 시간대로의 변화는 이와 같이 작가의 처녀작에 비해 오랜 기간 창작을 하면서 마치 정신치료 과정 중에 자아의 성숙이 일어나듯이 20여 년간의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 자아의 응집력이 증가한 것을 잘 반영하고 있는 변화였다. 처음 「나목」을 쓸 때에 비해 1992년에 작품을 쓸 때에는 비록 개인의 상실을 창작을 통해 다룬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이를 작품으로 다루는 방식은 훨씬 성숙하고 자아의 창작심리의 작동이 유연하고 거시적인 면으로, 또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20년의 작가 경력이 개인적 측면에서 정신치료적 요소가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도 있는 면이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았다(Table 1).

결 론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 상실의 아픔을 여러 차례 경험한 작가 박완서의 창작심

리에 대해 처녀작과 두 자전적 소설을 통해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작가는 상실한 대상에 대한 미움과 죄책감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작을 한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부재를 대체해 줄 대상이었던 오빠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대상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으며 발달 과정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격성과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실제 전쟁을 겪으며 오빠가 부상을 당하고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난 후에 강한 죄책감이 의식의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아 노력의 일환으로 글쓰기라는 창작행위를 시작하고 지속한 것이다. 둘째, 대상 상실로 인한 자아 붕괴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창작을 한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은 경험은 작가의 자아 발달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죽음이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더 크게 여길 수 있다. 이에 대해 작품 창작활동은 여러 가지 동기, 감정들을 정리하여 자아가 자기 응집력을 높이고 통합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노력이었다.

마지막으로 정신치료를 삶의 이야기 수정 과정으로 볼 수 있듯이, 작가는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자전적 소설을 쓰게 되었으며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시각을 얻는 자기치유의 과정을 경험한 것이다.

이렇듯 작가에게 있어 창작의 의미는 중요한 대상의 상실로 인해 나타난 내적 갈등을 이겨내기 위한 자아의 적응적 행동의 일환이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REFERENCES

- Colarusso CA, Montero GJ. Developmental and psychopathological issues of intrapsychic loneliness and aloneness during midlife: a clinical case. *Psychoanalysis* 2011;22:19-26.
- Freud S. Creative writers and daydreaming. SE 9. London: Hogarth Press; 1908. p.141-156.
- Freud S. Delusions and dreams in Jensen's 'Gradiva'. SE 9. London: Hogarth Press;1907. p.7-93.
- Freud S. Dostoevsky and parricide. SE 21. London: Hogarth Press;1928. p.177-194.
- Freud S. Leonardo da Vinci and a memory of his childhood. SE 11. Lon-

- don: Hogarth Press;1910. p.57-138.
- Freud S.** Mourning and melancholia. SE 14. London: Hogarth Press; 1917. p.237-258.
- Ha JH, Cho DY.** A psychodynamic study on the maiden work of Kim Dong-In, a Korean writer: "The Sorrow of the Weak". J Korean Psychoanalytic Study Group 1996;7:18-31.
- Howard GS.** Culture tales. A narrative approach to thinking, cross-cultur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Am Psychol 1991;46:187-197.
- Jones W.** The missing mothers of Leonardo and Magritte. In: Panter BM, Virshup E, Carder S, Carder L, Warick L, Warick E, et al. Creativity & madness: psychological studies of art and artists. Burbank, CA: Aimered press;1995. p.207-221.
- Klein M.** Love, guilt and reparation. London: Hogarth;1937.
- Kris E.** Psychoanalytic explorations in art.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1952.
- Lee BW.** Psychoanalysis and literature: the unconsciousness of the creative writers. Psychoanalysis 2012;23:109-114.
- Lee BY.** 'Frankenstein' from a psychoanalytic perspective. Psychoanalysis 2014;25:65-70.
- Loevinger J, Wessler R.** Measuring ego development. San Francisco: Jossey-Bass;1970.
- Lowenfeld H.** Psychic trauma and productive experience in the art. Psychoanal Q 1941;10:116-130.
- Niederland WG.** Psychoanalytic approaches to artistic creativity. Psychoanal Q 1976;45:185-212.
- Noy P.** Form creation in art: an ego-psychological approach to creativity. Psychoanal Q 1979;48:229-256.
- Noy P.** Insight and creativity. J Am Psychoanal Assoc 1978;26:717-748.
- Robbins MD.** On the psychology of artistic creativity. Psychoanal Study Child 1969;24:227-251.
- Segal H.** Dream, phantasy and art. London: Routledge;1991.
- Volkan VD, Josephthal D.** The treatment of established pathological mourners. In: Karasu TB, Bellak L. Specialized techniques in individual psychotherapy. New York: Brunner/Mazel;1980. p.118-142.
- Warick L, Warick E.** Edvard Munch: a study of loss, grief and creativity. In: Panter BM, Virshup E, Carder S, Carder L, Warick L, Warick E, et al. Creativity & madness: psychological studies of art and artists. Burbank, CA: Aimered press;1995. p.177-186.
- Weiner IB, Bornstein RF.** Principles of psychotherapy: promoting evidence-based psychodynamic practice. New York: John Wiley & Sons; 2009.